

자비스 AI 활용 성공 사례 | 인사총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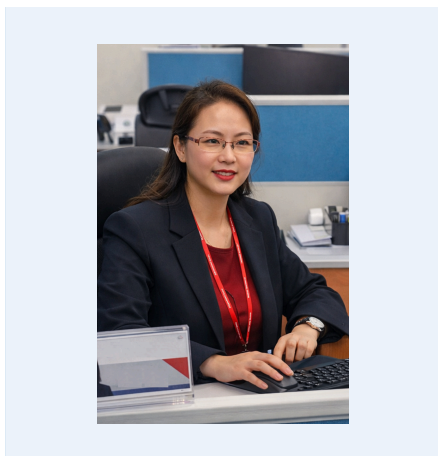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AI 없이 일 못 합니다

인사총무팀 조정숙 과장의 AI 업무 혁신 이야기 | 2026. 03. 25.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정숙 과장은 AI라는 단어 앞에서 고개를 젓곤 했습니다. ChatGPT나 Gemini를 써본 적은 있지만 '우리 회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 곧 정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자비스의 AI 확산 프로젝트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매달 반복적인 작업, 꼼꼼히 검토해도 사라지지 않던 오류들, 타 부서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가득한 업무 환경 속에서 Claude Cowork를 처음 도입한 후, 그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숙 과장 인사총무팀

ChatGPT·Gemini 사용 경험에서 Claude Cowork로 전환, 자비스 AI 파일럿 프로젝트 1호 참여자.

핵심 성과: 법인세 인사자료 작성 8시간 → 4시간,
데이터 오류율 대폭 감소, 엑셀 함수 활용 시간 절반 단축

50% (절반)

업무 시간 단축

대폭

오류 건수 감소

전 분야

적용 업무 영역

01 / AI와의 첫 만남 — '이거 진짜로 해주더라고요'

Q. AI로 데이터를 처음 처리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놀라운 점이 있었다면요?

매달 반복하던 초과근무 (OT) 데이터 정리 작업이 있었어요. 집중이 필요한데 다른 부서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작업이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 실수가 생겨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AI에게 데이터를 주고 분석을 맡겼더니,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오류들을 하나씩 목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10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돌려봤더니 조금의 오류가 있었어요. '이거 진짜 썼으면 이런 실수들이 다 없었을 텐데'—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하네, 싶었어요. 그런데 단계를 넘어가면서 보니—제가 꼼꼼히 봐도 놓쳤던 실수들을 AI가 금방 찾아주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로 놀랐습니다.

— 조정숙 과장, 인사총무팀

02 / 직접 부딪히며 익힌 AI 활용법

Q. 프롬프트를 어떻게 최적화해 나가셨나요?

처음엔 아주 자세하게 다 써줬어요. 주말·공휴일 날짜를 하나하나 다 입력해줬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건 AI도 알 것 같다' 싶어서 싹 빼고 '주말, 토요일, 공휴일 기준으로 계산해줘'라고만 했더니—딱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감이 생겼어요. 길게 쓸 필요 없이, AI가 이해할 수 있는 핵심만 던져줘도 충분하다는 걸. 처음엔 프롬프트가 엄청 길었는데 점점 줄어갔어요.

💡 조정속 과장의 프롬프트 팁

- 핵심 조건만 명확하게 — AI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다
-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한두 줄만 더 추가해 방향을 잡아주면 된다
- 자기 업무를 설명하고 '더 빨리 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보라
- 작은 것부터 시작해 성공 경험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응용 범위가 넓어진다

03 / 달라진 업무 루틴 — 정확성과 자신감

Q. 현재 어떤 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계신가요?

초과근무(OT) 시간 집계와 교통비 정산부터 시작했어요. 계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작업 시간이 확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연차 사용률 그래프, 대휴 처리까지 단계를 높여가고 있어요.

특히 법인세 신고를 위한 인사 자료 작성에서 효과가 컸어요. 수백 건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예전엔 모르는 엑셀 함수가 나오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가면서 8시간씩 걸렸거든요. AI한테 '이

결과를 뽑으려면 어떤 함수를 쓰면 되냐'고 물으니 MID 함수, TEXTA 함수, VLOOKUP 활용법을 바로 알려줘서 4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Q. AI 덕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일이 있나요?

보고서의 신뢰성이 높아졌어요. 각 사업부 본부장들에게 매달 전달해야 하는 자료인데, 전에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은 AI가 검증해주니까 자신감을 갖고 보낼 수 있어요.

반복적인 수식 수정이나 단순 데이터 처리를 AI에게 맡기니까, 저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

AI를 활용하기 전에는 단순 정리와 계산에 많은 시간을 썼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AI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깊이 생각하고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의 질과 만족도 모두 높아졌습니다.

— 조정숙 과장, 인사총무팀

04 / 아직 망설이는 동료에게 전하는 말

Q. "나는 데이터를 잘 못 다뤄서 AI도 못 쓸 것 같다"는 동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그 일의 흐름을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AI한테 내가 하는 업무 방법을 설명해주고, 이걸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작은 것 하나씩 시도해봤어요. '이 재료에서 이 결과를 만들어줘'—이게 됐을 때의 그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좀 더 복잡한 것도 맡기게 돼요. 한번 믿어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맡겨도 잘 해내는 걸 보면서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조정숙 과장은 AI 전문가가 아닙니다. 코딩도 모르고, 데이터 사이언스 배경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지식을 AI와 연결했을 뿐입니다.

"AI가 내 일을 빼앗는다"가 아니라, "AI 덕분에 내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그것이 자비스의 AI 혁신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제 자비스의 AI 확산은 막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숙 과장의 경험은,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AI 성공 주인공은 당신일 수 있습니다!**

AI 전문 지식이 없어도, 코딩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바로 AI 과제를 신청하고, 나만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세요.

본 사례는 자비스(Xavis) 전사 AI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자비스 AI혁신팀